

“담배를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자각 없이 청소년의 흡연을 방치하고 있는 어른들과 담배를 아무곳에서나 피워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개인적인 것은 물론 건강에 관한 얘기이다. 성장기의 학생들이나 여성들에게 담배에 인체에 더욱 해롭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는 사회적인 문제로써 다루고자 한다.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2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담배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음식처럼 개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다. 담배란 피우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기분전환같은 효과를 주지만, 옆사람에게는 하나의 괴로움이다.

몇몇의 흡연자때문에 실내 공기가 혼탁해진다. 또한 길을 걸으면서 마시게 되는 담배연기는 정말 기분나쁘다. 그러나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인간은 혼자서 살수없다. 그안에서 서로가 기분좋게 생활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중요하다. 때, 장소, 사람에 따라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이러한 타인에게 마음쓰는 것, 곧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흡연자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해줬으면 한다.

하지만 아직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생각치 않는 사람도 많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선 처벌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왠지 인간의 취향 극히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흡연의 문제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강제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맘에 걸리긴 하지만,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건물 실내, 공공 장소등 꼭 필요한 곳이라면 규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까지 적용되는것보다는 흡연자 스스로가 이런 것을 느끼고 무절제한 흡연(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는 행위)을 다스릴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